

# 홀로그램 회의가 현실로... KT, 韓-美 1만km 연결 성공

마이클잭슨 헌정앨범 발매 기념  
5G 활용 세계 최초 대륙간 연결

KT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로 영화 '킹스맨'과 같은 홀로그램 회의가 현실로 구현됐다.

KT는 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K-Live에서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미국 대륙간 홀로그램 시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은 마이클잭슨 헌정앨범 '더 그레이테스트 댄스(The Greatest Dance)'의 첫 번째 싱글 발매 기념으로 마련됐다.

KT는 이날 상암동 K-Live에 구축돼 있는 플로팅 홀로그램 시스템에 5G 모바일 핫스팟(MHS)을 연동해 대한민국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간 약 9500km의 거리차를 홀로그램으로 선보였다. 플로팅 홀로그램 시스템은 홀로그래피에 의해 생성된 3차원 사진을 얇고 투명한 금속 물체에 투영해 허공에 떠 있는 것과



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K-Live에서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미국 대륙간 홀로그램 시연에 왼쪽에서부터 7SIX9 아시아 황윤하 대표가 7SIX9 제리 그린버그 회장과 홀로그램을 통해 대화 중이다. /KT

같은 홀로그램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법이다.

이번 홀로그램 시연 주인공은 제리 그린버그 7SIX9 엔터테인먼트 회장이다. 그는 마이클잭슨의 프로듀서이자

이번 헌정앨범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인물이다.

KT는 이번 홀로그램 텔레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인터넷 국제망을 이용했다. 미국 LA에서 국

제망을 통해 한국으로 전송된 홀로그램 데이터를 국내 신규 구축한 초고속 광대역의 5G망을 통해 상암 K-Live 현장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텔레프레젠테이션은 원격회의란 뜻이다. 실물 크기의 화면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보며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홀로그램 텔레프레젠테이션'은 텔레프레젠테이션 기술에 홀로그램 기술이 더해져 구현됐다. 영화 킹스맨, 어벤저스 등과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홀로그램 회의가 KT의 기술로 가능해진 셈이다.

5G에서는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20 Gbps의 전송속도와 10분의 1의 지연 시간이 요구된다. KT는 3월부터 본격적인 5G 상용화에 나선다.

이날 마이클잭슨 첫 번째 싱글을 공동 프로듀싱한 제이슨 데룰로가 홀로그램 영상으로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제이슨 데룰로는 홀로그램 영상에서 앨범 참여 소감과 함께 KT 5G 기술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이슨 데룰로는 2009년 데

뷔 싱글 '와차 세이(WhatCha Say)'로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 달성, 전 세계 4500만 앨범 판매, 유튜브 총 조회수 12억 5000만 뷰를 달성한 미국의 대표 싱어송라이터다.

이외에도 KT 마케팅부부장 이필재 부사장, 뉴미디어사업단 김훈배 상무와 7SIX9 엔터테인먼트 아시아 황윤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부장 부사장은 "KT의 5G 네트워크와 홀로그램 기술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능력과 같다"며, "앞으로도 음원, 뮤직비디오, 공연 등 다양한 영역에 KT 5G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2014년 세계최초 홀로그램 상영관인 K-Live를 구축하고 케이팝 홀로그램 콘텐츠와 내 친구 타루, 허풍선이 과학쇼 등 아동용 홀로그램 뮤지컬 콘텐츠를 제작하여 상영해왔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기아차 '쏘울 부스터 EV' 판매 개시

64kWh 고용량·고전압 배터리 적용

기아차는 새롭게 탄생한 '쏘울 부스터 EV(사진)'를 출시하고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쏘울 부스터 EV모델은 기아차 전기차 최장 주행거리 386km, 전기차 특화 주행 모드, 다양한 충전편의 기능 등을 갖췄으며 판매 가격은 '프레스티지' 4630만원, '노블레스' 4830만원이다.

프레스티지 트림은 풀 LED 헤드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정차·재출발 기능 포함 등 EV 모델만의 첨단 사양을 모두 갖췄으며 노블레스 트림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10.25in HD급 와이드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후

석 열선시트 등 프리미엄 사양들이 탑재됐다.

쏘울 부스터 EV는 기존 대비 80% 이상 향상된 150kW의 출력을 확보하고 운전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부하 토크 영역에서의 효율을 증대시킨 모터를 장착해 1회 충전 시 386km를 주행할 수 있다. 이는 기아차 전기차 중 최장 주행거리다. 또 최장의 주행거리를 위해 기아차는 쏘울 부스터 EV에 기존 쏘울 EV(30kWh) 대비 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린 64kWh 고용량·고전압 배터리를 적용했다.

/양성운 기자 ysw@



## SK이노, 임금협상 1.5% 인상 타결

2019년 임금협상 조인식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올해 임금인상률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인 1.5%에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은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이정목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위치한 SK빌딩에서 '1.5%인상에 합의하는 2019년 임금협상' 조인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갖고 지난달 27일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참여 조합원의 87.60%가 압도적으로 찬성하면서 올해 임금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은 임금협상 조인식에서 "임금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곧바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은 국내외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로, 노사가 2017년 임단협 이후 지속해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해

와 신뢰에 기반한 선진 노사관계는 향후 SK이노베이션이 100년, 200년 기업으로 성장·발전하는 주춧돌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목 노동조합위원장은 "올해 임금협상을 계기로 노사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길 바란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 소통하면서 작은 부분까지 신뢰를 쌓아 더욱 견고하고 바람직한 노사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노사가 ▲신속한 임금인상률 잠정합의 ▲높은 찬성률로 찬반투표 통과 등이 가능하게 된 것은 2017년 9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을 국가가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키로 한 노사합의를 양측이 신뢰에 기반해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2018년에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와 동일한 1.9%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바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삼성전자, 러시아 소비자 마음 잡았다

KPMG 조사 '러, 고객만족도 1위'  
신뢰도 등 5개 항목서 '최고점수'

삼성전자가 러시아 소비자들에게도 만족도 1위 브랜드로 올라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업체 KPMG는 최근 '러시아 고객만족도 우수 100대 브랜드'에 삼성전자를 가장 높은 자리에 표기했다.

삼성전자 점수는 10점 만점에 8.24점이었다. 현지 5000여명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설문은 ▲고객 접근 방식 ▲브랜드 신뢰도 ▲소비자 기대 충족 ▲문제 해결 능력 ▲신속성 및 효율성 ▲소비자 공감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KPMG는 삼성전자가 5개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수년간 디지털 기기 시장을 주도하며 신뢰를 쌓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연령별로는 45세 이상에서 지지가 높았다.

KPMG가 러시아에서 브랜드 고객 서

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KPMG는 산하 기관 '소비자 경험연구센터'에서 2010년부터 주요국가 브랜드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외에는 나이키(8.09점)와 이브루세(8.08점), 소니(8.05점) 등이 뒤를 이었다. 비자(8.03점), 르로이 메를랭(7.99점), 마스터카드(7.98점), 아예로플로트(7.97점)에 이어 이케아(7.97점)와 아디다스(7.94점)까지가 톱10에 올랐다.

/김재웅기자 juk@

## “장애인 콜택시 AI로 호출하세요”

LG U+, AI기반 서비스 출시

LG유플러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장애인을 돕는 '행복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인공지능(AI)기반 장애인 전용 서비스를 5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돕는 장애인 콜택시 호출, 교통약자용 지차형정보확인 AI 서비스를 선보인다. 향후 위급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119 문자신고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콜택시 호출 서비스는 네이버 클로바 애플리케이션(앱)의 '스킬 스토어' 메뉴에서 계정 연동 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콜택시 호출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앱에서 사용중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된다.

이동에 불편함을 느꼈던 장애인은 콜택시 호출 서비스를 통해 음성명령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의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와 협업해 개발했다.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가 탑재된 스마트홈 서비스 'U+우리집A' 및 클로바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는 "클로바, 장애인 콜택시 불러줘"라고 AI스피커에 얘기해 콜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LG전자는 SXSW에 인스퍼레이션 갤러리를 마련한다.

/LG전자

## LG전자, SXSW 첫 참가

### 신개념 콘셉트 제품 대거 선보인다

LG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 콘텐츠 페스티벌에 참가해 기술력을 뽐냈다.

LG전자는 8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리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에 처음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SXSW는 음악과 영화를 비롯해 스타트업 주도 신기술과 신제품 등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행사다. 1987년 음악페스티벌에서 규모를 확장했다.

부스 이름은 'LG 인스퍼레이션 갤러리'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단독 전시장을 마련했다. 유망 스타트업과 네트워킹 확대와 새로운 투자 기회 및 협업 방안 모색 목적도 있다.

LG전자는 다양한 콘셉트 제품을 SXS

W에서 최초로 공개한다. 인공지능으로 사용자와 교감하는 로봇 콘셉트 제품과 캡슐형 아이스크림 제조기 '스노우하이트', 스마트 라이팅 솔루션을 적용한 응원봉 '판타스틱(fantastick)' 등이다. 시간과 날씨 등을 알려주는 벽걸이 시계 '타임+스페이스'와 주얼리 타입 무선 이어셋 '샤인'도 있다.

이들 제품은 뉴비즈니스 센터가 기획했다. 뉴비즈니스센터는 고객 연구와 문화·기술 트렌드 리서치를 토대로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조직이다. LG 홈브루가 바로 뉴비즈니스센터 작품이다. 아울러 LG전자는 톨러블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과 클로이 안내로봇 등도 함께 자리에 선보인다.

/김재웅 기자 juk@